

■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

제목 : 사랑하는 기쁨

성경: 마태복음 22장 37-40절

Tag:

37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

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

39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

40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(마22:37-40)

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.

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,

네 마음을 다하고, (heart)

목숨을 다하고, (soul)

뜻을 다하여(힘을 다하여;마가;strength)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.

*네 마음을 다하고;정성을 다하여. **다하라**;all. 선택과 집중의 개념.
내가 지금 무엇을 할지를 정했다면(선택), 그 시간만큼은 그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과 병행하지 말라.(사실 집중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.)

(다하라; 예화; 식혜 끓이기. 100℃를 넘기면 넘침. 한 눈 팔면 끝장.)

-네 하나님을 정성껏 사랑하라.

-간절함을 담아 사랑하라.

*목숨(soul)을 다하고;

-자신의 의지 자체. **100% 자기 자신의 의지로**. 사랑하라. 현혹된 사랑, 강요된 사랑, 마지못한 사랑, 억지 사랑...(유치원 아들에게. 꿀밤 몇 대 넣어준 다음에... 아빤 널 사랑해, 너도 아빠 사랑하지? 말해,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...)

온전히 네 의지와 결단으로 하나님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변개치 말라. 후회함이 없는 사랑을 하라.

-처음에는 누군가 옆에서 권하더라도, 결국은 너의 의지와 결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. 하라는 대로 할 뿐이라고 하지 말고, 스스로의 결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후회하지 말라.

-누군가 옆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권하거든, 그것을 나도 해야겠다. 나는 더 잘해야겠다고 다짐하며 사랑하라는 뜻.

(**예화;

존 비비어 목사님이 어느날 운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, “존, 내가 나를 보살피는 것 보다 너를 더 끄찍이 여기는 줄 너는 아니니?” 처음에는 마귀의 미혹인 줄 알았답니다,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, “주님, 그 말씀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말씀입니다,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나같이 하찮은 것을 당신 자신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다니요? 그런 말씀에 증거가 될 성경 구절을 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”

4. 그 후 성경구절이 생각났습니다,

벤전 2:24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

“누가 십자가에 매달렸느냐? 너냐, 나냐?” 그 말을 들을 때 비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보다 자기를 더 끄찍이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, 눈물이 흐르기 시작 했습니다,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,

롬 5: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)

*뜻을 다하여;(마가;힘을 다하여 strength)

-세상의 모든 일은 힘을 집중하지 아니하면 성사되지 않는다.

- 장인과 수련생의 차이는 힘을 집중할 줄 아는가 모르는가.
- 하루아침에 장인되지 않는다.
- 하루아침에 성도되지 않는다. 집중할 줄 알아야 한다. 예배에 힘을 모으고, 찬양에 힘을 모으고, 예물에 힘을 모으고, 매사에 대충하는 것 하나님 성품 아니다.

그러면 하나님 사랑은 계명인가, 열정인가? 의무인가?

*계명인 이유; 우리는 사랑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. 본능이기도 하고, 배움이기도 하다. 성장하고 발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터득 되는 것이기도 하다.

-그러나 사람은 간혹 사랑보다 미움을 먼저 배우기도 하고, 질투를 먼저 배우기도 하며, 사랑받기에 익숙하게 된다면, 자기 사랑이 더 우선적인 사람이 있다.

-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본능이 사람에게에는 있는데, 마귀는 그 본능을 더럽혀서 우상숭배와 기복신앙으로 변질시키려 한다. 심지어 교활한 속임수로 사람을 파탄에 이르게 한다.

-그래서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.

*열정인 이유; 모든 사랑은 열정적이며, 모든 진실한 사랑은 꺼지지 않는 열정이다.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. 하나님께서 각 사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불어넣어 주신다.

그런데 열정은 **교제를 통해서 더 뜨거워진다**.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다.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,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계속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열정은 계속 타오른다. 만약 교제가 끊기면 열정은 사그라든다.

-그러면 왜 열정이 사그라들었는지 살펴야 한다. 무엇이 문제인가? 엔진이 꺼진 이유는 무엇인가? 어디가 고장인가?

4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
(계2:4)

5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
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
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(계2:5)

-분명히 열정이 식었다면, 그것은 회개할 문제라고 하신다. 문제를
해결해야 한다는 뜻이다.

*의무인 이유;마땅한 것이기 때문. 사랑은 영원하다. 천국에서도 사
랑만큼은 지속된다.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지, 이
상하거나 희귀한 일이 아니다.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 또한 마땅
한 것이다.

-하나님은 사랑이시다.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속성이다.

-모든 사랑은 하나님이 그 원천이시다.

-그러나 우리는 사소한 이유로 사랑을 소홀히 한다.

어제 작고하신 이어령교수의 글이 있다.

(* *예화

이어령 선생님은 젊은 시절 가난했고 너무 바빴다고 합니다.

아빠로서 딸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은 돈을 벌어 바비인형이나 피아노
를 사주고 좋은 사립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믿었답니
다.

어느 날 어린 딸 민아가 글쓰던 자신의 서재에 문을 두드렸습니다.
아빠에게 굿나잇을 하러 온 것입니다. 아마도 딸은 아빠가 안아주거
를, 그리고 새 잠옷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.

그런데 아빠는 마침 떠오르는 영감을 글에 담아내기 위해 여력이 없
었습니다.

글에 집중하느라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손만 흔들며 “굿나잇 민아.”
라고 했습니다. 예민한 아이였던 딸 민아는 아빠의 뒷모습만 보고 돌
아서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.

시간이 흘러 딸이 결혼도 하고 중년이 되었지만 사랑하는 딸은 암에 걸려 결국 아버지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.

이어령 선생님이 죽은 딸이 생전에 했던 인터뷰 기사를 읽었습니다. 그 때 수십년 전의 그 날 밤이 떠올랐습니다. 그리고 딸이 얼마나 아빠의 사랑을 받고 싶었는지를 알았습니다.

딸은 인터뷰 기사에서 퇴근해 온 아빠의 팔에 매달렸을 때, ”아빠 밥 좀 먹자“하고 밀쳐낸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. 그 날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. 한번은 ”원고 마감이야, 애 좀 데려가!“ 라고 엄마에게 소리치는 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.

그러면서도 그 인터뷰에서 아빠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라며 아빠를 두둔해 줍니다.

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. 자신의 사랑 자체가 부족했고 믿음이 부족했다고. 자기가 지금 일하지 않으면 ‘제대로 사랑하지 못할거야’ 하는 불안한 마음에 돌아볼 수 없었노라고.

그가 잘못을 깨닫고 늦었지만 이미 천국에 간 딸에게 편지를 쓰며 단 30초만 달라고 간구합니다. 이렇게 썼습니다.

“나에게 만일 30초의 그 시간이 주어진다면 딱 한번이라도 좋으니 낡은 비디오테이프를 되감듯이 그 때로 돌아가자.

나는 그 때처럼 글을 쓸 것이고 너는 엄마가 사준 레이스 달린 하얀 잠옷을 입거라. 그리고 아주 힘차게 서재 문을 열고 ”아빠 굿나잇“하고 외치는거다. 약속한다. 이번에는 머뭇거리며 서 있지 않아도 돼.

나는 글 쓰던 펜을 내려놓고, 읽다만 책장을 덮고, 두 팔을 활짝 편다.

굿나잇 민아야, 잘 자라 내 사랑하는 딸.

그런데 어찌하면 좋으니. 내가 눈을 떠도 너는 없으니

너와 함께 맞이할 아침이 없으니.

그러나 기도한다. 우편번호 없이 부치는 이 편지가 너에게 전해질 것을 믿는다.

갑자기 끊겼던 마지막 대화가 이어지면서 찬송가처럼 울려오는구나.
굿나잇 민아야, 잘 자라 민아야, 보고 싶다 내 딸아”
([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] 이어령)

-그래서 사랑의 의무감을 일깨우는 것도 중요하다.

-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이 사랑의 의무감을 일깨워야 한다.

<찬양예배>

제목 : 성경:

Tag: